**피아니스트 이진상**

2009년 스위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우승과 동시에 대회 최초로 슈만 상, 모차르트 상 그리고 청중상의 모든 특별상을 휩쓸며 이목을 집중시킨 피아니스트 이진상은 “카리스마를 겸비한 지적인 음악가” (A. Zimmerlin, Neue Zürcher Zeitung), “한 명의 완전한 예술가 (T. Meyer, Tagesanzeiger)”,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시적인 소리 (F. Curmally, The Serenade)” 라는 평론가들의 극찬과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자리매김했다.

일찍이 국내에서 서울예고 수석 입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입학 및 부산음악콩쿠르 대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중앙음악콩쿠르1위, 서울신인음악콩쿠르 대상 등을 연이어 석권하며 한국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던 그는 2005년 쾰른 국제피아노콩쿠르와 2008년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홍콩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명성을 쌓았다.

겸허한 무대 매너와 진정성으로 유럽 무대에서 더욱 찬사를 받는 이진상은 니콜라이 즈나이더, 더글라스 보스톡, 데이비드 에프론, 로만 코프만, 마리오 벤자고, 마이클 보더, 무하이 탕, 미하일 유로브스키,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안토니 헤르무스, 올라 루드너, 우메다 토시아키, 에이빈트 굴베르크 옌센, 조나단 노트, 크리스토퍼 워렌 그린, 테오도르 구쉴바우어, 페터 귤케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뉘른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센다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WDR 방송 교향악단등 정상급 오케스트라에 초청되었다. 국내에서는 KBS 교향악단 및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경기필, 부천,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수원시향 등 주요 교향악단들과 협연한 바 있다.

또한 루르 피아노 페스티발, 루체른 페스티발, 메뉴힌 페스티발, 몽트뢰 페스티발, 부조니 페스티발, 서울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 에르넨 페스티발, 체르보 페스티발, 홍콩 조이 오브 뮤직 페스티발 등 세계 유수의 음악 페스티발에 초청되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 취리히 톤할레, 루체른 KKL, 뉘른베르크 마이스터징어할레, 파리 루브르박물관 등 명 공연장에 초청되었다.

솔로 음반은 2009년 게자 안다 콩쿠르 실황 음반, 2011년 스타인웨이 고(古) 피아노와 현대 피아노 두 대로 녹음된 힐러-멘델스존-쇼팽 음반, 2015년 슈만의 어린이를 위한 소나타 (Piano Sonatas for the Young, Op. 118 / 5 Gesänge der Frühe)가 있으며, 그가 속해있는 피아노 트리오 ‘베토벤 트리오 본’과 함께 한 음반으로 2017년 “Georgy Sviridov”와 2020년 3개의 CD에 걸쳐 녹음된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곡들이 출반되어있다. 2021년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함께 한국인 최초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음반을 발매하였다.

완벽한 소리에 대한 갈증으로 피아노 악기 자체에 심취하게 된 이진상은 피아노 테크닉 및 제작 과정을 직접 배워 ‘공장에 간 피아니스트’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영화 <피아노마니아>에서 조명된 명 테크니션 슈테판 크뉴퍼를 사사하며 스타인웨이 오스트리아에서 피아노 테크닉을 공부하고, 이후 스타인웨이 함부르그 공장에서 피아노 제작과정에 직접 몸담았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첫 사례로서, 이진상은 나무를 고르고 다듬는 과정부터 완성된 피아노를 최종 선택하고, 선택된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여 청중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여정을 통해 피아니스트로서 또다른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음악가로서의 발판을 닦은 이진상은, 쾰른 국립음대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실내악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2015년부터 바이올리니스트 Mikhail Ovrutsky와 첼리스트 Grigory Alumyan과 함께 ‘베토벤 트리오 본 (Beethoven Trio Bonn)’의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다. 글로도 독자들과 소통하며 월간 <피아노음악> ‘피아노맨이야!’ 시리즈에 피아니스트와 테크니션으로서의 그의 독특한 경험을 연재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신문 <문화마당> 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 중이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음악인에게 주어지는 ‘운파 임원식 음악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후학 양성 중이다.